

괴물2… 타짜2… 마파도2… 나도열2…

충무로 히트영화 '속편 바람'

1천298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신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은 관객 400만 여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속편 제작' 이야기가 솔솔 새어나왔다.

봉준호 감독은 "속편 제작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제작사인 청어랑 최용배 대표는 "괴물 속편을 고려하고 있다. '에일리언'처럼 같은 설정 안에 감독을 달리하는 시리즈물 형태가 될 것"이라며 속편 제작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리즈로 제작되는 영화가 늘고 있다. 최근 제작되는 '속편'은 전편의 흥행을 등에 업은 얄팍한 '기획'으로 비쳐지던 것에서 벗어나 영화의 '브랜드화'를 노리고 있다.

600만명을 돌파한 '타짜'도 속편 제작이 논의 중이다. 싸이더스 FHN 측은 "속편이 제작된다면 포커 게임을 다른 만화 '타짜' 4부 '별제불의 노래'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50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며 대표적인 주석 브랜드 영화로 자리잡은 영화 '가문의 부활-가문의 영광'은 '가문의 족보(가계)'라는 제목으로 4편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 4편에서는 백호과 가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조폭마누라·여고괴담 등 브랜드화 노력

상우, 김하늘 두 청춘 스타를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도 이철아, 박기웅 주연으로 2편이 활영되고 있다.

그밖에 미남, 미녀 톱스타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연기파 할머니들의 내공으로 성공한 '마파도'도 일부 출연진만 교체하고 속편을 활영하고 있다.

김수로 주연의 '흡혈형사 나도열'은 아예 처음부터 시리즈 물로 기획된 영화다. 나도열은 모기에 물린 후 성적으로 흥분하면 과력의 흡혈귀로 변신하게 된다.

영화는 독특한 사연의 주인공을 중심

으로 나도열의 활약상을 코믹하게 그려내며 개봉 첫 주 100만 이상 관객을 기록하는 등 예산외의 성공을 거뒀다. 흥분하면 흡혈귀로 변하는 개성 있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2편과 3편에서 나도열의 본격적인 활약상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시리즈 제작 열풍은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경향이다. '007 시리즈' '나이하드'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등은 5~6 편까지 제작되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007 시리즈'의 경우 영화가 활영될 때마다 '새로운 본드걸은 누구?' '새롭게 등장하는 자동차와 무기는?' 등 각종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며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최근에도 '미션 임파서블' '캐리비안의 해적' 등 시리즈 영화가 박스 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시리즈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우리나라에도 '투캅스' '결혼 이야기' 등 시리즈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속편이 공개될 때마다 '형만한 애 없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전편의 흥행에 기대어 악의 제작도 비난을 더하는 데 한몫했다. 최근 개봉을 앞두거나, 제작하고 있는 시리즈 영화는 기존 시리즈 영화와 차별화를 외치는 만큼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주목! 이영화 프레스티지

최고 마술사의 불꽃 경쟁

뭔가 실새없이 나오는 신기한 모자, 조그마한 상자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람... 마술은 '속는다'는 것을 알고 봐도 속을 수밖에 없는 예술이다. 영화 '프레스티지'(감독 크리스토퍼 놀란)는 최고의 마술사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쇼맨십이 강한 마술가 로버트 앤지어(휴 잭맨)과 고아로 자라 거친 성격이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알프레드 보든(크리스찬 베일)은 '최고의 마술사'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그들이 최고로 자신했던 수중마술이 실패로 끝나면서 로버트는 아내를 잃고 두 사람은 원수로 돌아한다.

어느 날 알프레드가 마술의 최고 단계인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고 질투심에 불탄 로버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리비아(스칼렛 요한슨)를 알프레드에게 접근하게 해 비밀을 캐내려 한다. 영화는 '마술사'들의 이야기로 보다는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간의 대결이다. '위신, 명성'이라는 뜻의 '프레스티지(Prestige)'는 영화에서 '마술의 트릭' '순간이동 마술'에 쓰이는 이동 수단 '신의 경지'에 도달한 마술의 최고 단계'를 의미한다. 15세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영화계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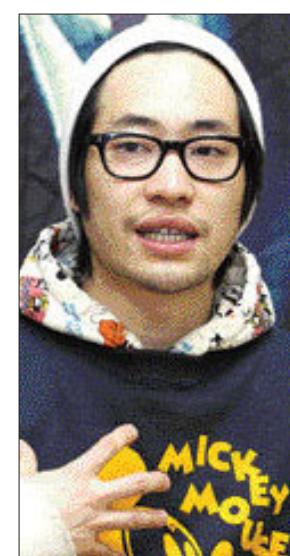
류승범, 정통멜로 도전

류승범이 차기작을 정통 멜로영화로 결정지었다. 류승범은 이무영 감독의 '영원한 남편'(제작 JM픽처스)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이몽구 역을 맡아 처음으로 정통 멜로영화에 도전한다. 류승범은 이 배역을 위해 14kg을 감량했으며 피아노도 직접 연주할 계획이다.

류승범은 '사생결단' 이후 올니버스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의 임필성 감독 편 '멋진 신세계'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다.

'휴머니스트' '절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 등을 연출한 이무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영원한 남편'은 피아니스트 몽구와 화가 수영의 사랑을 그린다.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재능을 두고 갈등하는 몽구는 결혼 후에 수영이 원주각막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실한 사랑을 완성해가려는 인물이다.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매월초
개강

- 재료: 물과 애드절도 수증기 세포구 물작동으로 사용
- 방법: 물에 애드절도 수증기 세포구 물작동으로 사용

중국어 시리즈
리듬자이나 中国語 学院

교습료: 233-9582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IST 한화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판기시스템 "코코" 출시

남대모방도

자동판기기에서 투입한 카드로 결제를

자동판기시스템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 투입금액: 5000, 10000, 20000 원

월드시스템 233-603-2752